

국제 노동 기구(ILO)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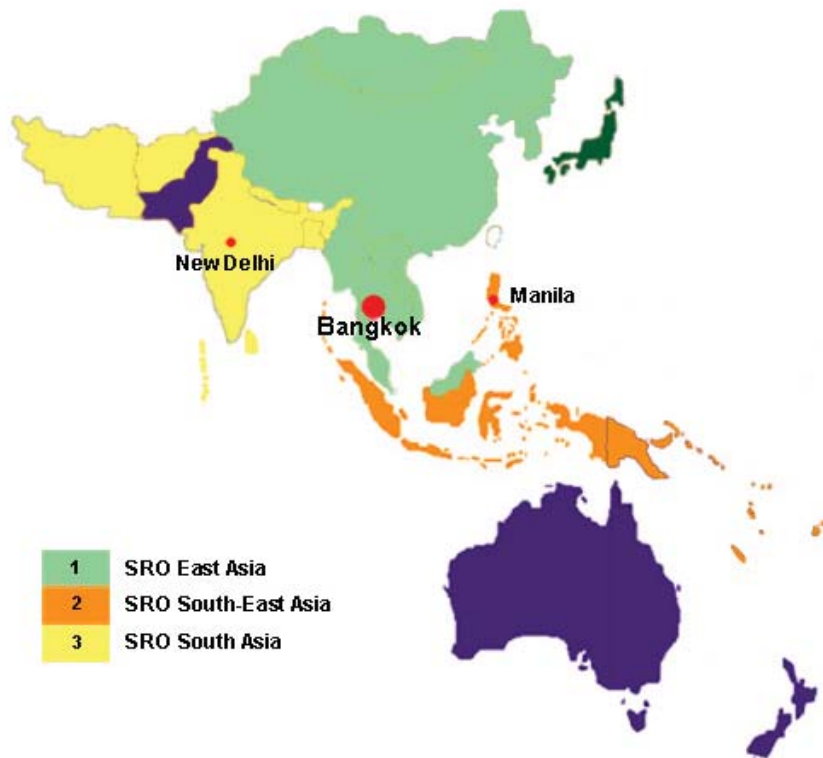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태국 방콕에 위치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아태지역본부(ROAP,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¹는 이 지역 30개국을 관할하고 있다. 아태지역은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다양성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37억을 웃도는 아태지역 인구 중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도 있는 반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이들의 3분의 2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

아태지역본부 산하에는 소지역 사무소(SRO, Subregional Office)가 세 군데 있다. 동아시아 지역사무소는² 본부와 마찬가지로 방콕이 있고,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 지역사무소는³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으며, 남아시아 지역사무소는⁴ 인도 뉴델리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의 베이징, 스리랑카의 콜롬보, 방글라데시의 다카, 베트남의 하노이,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네팔의 카트만두, 피지의 수바, 일본 도쿄에 국가별 사무소가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딜리,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캄보디아의 프놈펜, 몽골의 울란바토르, 라오스의 비엔티안, 미얀마의 양곤에 연락 사무소와 프로젝트 사무소가 있다.

아태지역에 배정된 2006~2007년의 2년간 예산은 미화 136,131,000달러이다. 국제 노동 기구의 아태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주요 국가 및 기관으로는 캐나다, EU, 독일, 일본,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UNDP 등이 있다.

Asia and the Pacific



¹아태지역 본부는 역내 국제 노동 기구 사무소에 대한 지역 관리, 감독, 행정지원 등을 맡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파키스탄까지 포함해 관리한다.

²동아시아 지역사무소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을 관할한다.

³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국가 지역사무소는 피지, 인도네시아, 키리바시, 파푸아 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솔로몬 군도, 동티모르, 바누아투, 기타 남태평양 군도 국가를 관할한다.

⁴남아시아 지역사무소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이란, 몰디브, 네팔, 스리랑카를 관할한다.

국제 노동 기구 (ILO) 개관

국제 노동 기구는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 기구로서 사회 정의의 구현과 범세계적으로 인지된 인권 및 노동권을 추구한다. 본 기구는 1919년에 설립되었으며, 국제연맹을 탄생시킨 베르사이유 조약에 따라 창설된 기관 중 남아있는 유일한 주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국제 노동 기구는 1946년 최초로 국제연합의 전문 기구가 되었다.

국제 노동 기구의 노사정 참여구조는 국제연합 체계 내에서도 독보적인 것으로서,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동등한 파트너로 기구의 관리체계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 노동 기구의 목적은 모든 이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제 노동 기구에는 네 가지 주요 전략이 있다.

- 첫째, 근로 기준과 기본원칙, 근로기본권리를 증진하고 실현한다.
- 둘째,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셋째, 모든 이들에 대한 사회 보장의 범위와 효과를 확대한다.
- 넷째, 노사정 참여구조와 사회적 대화를 강화한다.

또한 국제 노동 기구는 폭넓은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직업 훈련과 재할, 고용 정책, 노동 행정, 노동법, 노사관계, 근로 환경, 관리 개발, 협동조합, 사회 보장, 노동 통계, 근로 안전 및 보건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최근 아태지역은 자연 재해, 경제 위기, 지속적인 분쟁과 같이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및 교역 환경의 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세계화의 확산과 국제 교역 규칙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과 그 밖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노동 기구는 아태지역 국가들과 더불어 협조하고 있다.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경제를 개발하는 것이야말로 사회·경제적 진전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그 결과, 근로기본권과 원칙에 대한 존중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전분야가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심각한 문제들이 남아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생산적인 고용 기회를 증대시키고 적절한 사회 보장을 제공하는 문제이다. 이는 빈곤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일부 노동자,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와 빈곤층, 난민, 장애인 등에서 나타나는 고용, 사회, 인권 문제는 1997년 이후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 밖에도 남성과 여성, 아동의 인신매매 문제나 채무 노역, 위험한 아동노동 등, 시급한 문제가 산재해 있다.

국제 노동기구 지역본부는 아태지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개중에는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가 있는가 하면, 보다 장기적인 지원과 권고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있다. 빈곤 해소와 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가 있다.

위기 대응

아태지역 여러 국가가 최근 조류 독감이나 해일, 지진, 분쟁과 같은 자연 재해 및 위기를 경험했다. 국제 노동 기구는 이러한 위기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 창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 지도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노동

아태지역 5세 이상 14세 이하 어린이 노동자 수는 전세계 어느 곳보다도 많은 실정으로, 그 수가 1억 223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아동 인구의 64%에 해당한다.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 (ILO-IPEC)'에서는 위험한 근로 환경에서 일하는 어린이 수를 줄이고 특히 소위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라 불리는 노예생활, 성매매, 전쟁 및 분쟁에 참전하는 등을 근절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 고용

2005년 현재 15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층 남녀는 아태지역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20.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층은 지역 전체 실업인구의 절반 가량인 47.7%에 달한다. 국제 노동 기구는 청년실업률을 반으로 줄일 경우, 각국 GDP가 동아시아 1.5~2.5%, 동남아시아 4.6~7.4%, 남아시아는 4.2~6.7%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년층에게 적절한 교육과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술과 고용가능성

노동자의 기술과 시장의 요구를 맞추는 것이 경제 발전의 열쇠이다. 국제 노동 기구는 지역별로 기술과 고용가능성 프로그램을 마련해 각국 정부와 노동자들로 하여금 갈수록 세계화되고 신기술이 도입되는 등 변화하는 노동형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안전 및 보건

국제 노동 기구의 '근로 안전 및 보건 전문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별히 소기업을 대상으로 마련된 WISE 프로그램, 소규모 건축 공사 현장을 위한 WISCON 프로그램, 가정과 재택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WISH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들은 쉽게 배울 수 있고 직접 따라 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저렴한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공식 경제활동

최근 추산치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개도국에서 비농업 고용의 65%가 비공식(비정형) 고용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자급형 생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수도 수백만에 달한다. 이들은 장시간 일하고, 위험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경우가 많으며, 저임금에 시달리는 한편, 사회보장이나 법적 보호를 전혀 혹은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 상당수가 여성과 아동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과 보건을 포함한 사회 보장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주 노동

아시아 태평양 지역 출신 이주노동자 수는 전세계 다른 어느 곳보다도 많다. 최근 들어, 매년 260~290만의 아시아인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해외로 나갔다. 그 중 40%가 아시아 역내국으로 향한다. 노동 수요를 관리하고 적절한 법적 통로를 마련한다면 이들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비정형 해외 이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제 노동 기구는 이주 노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정당하고 안전하며 적절한 일자리를 찾도록 힘쓰고 있다.

빈곤

국제 노동 기구의 '아태지역 권고적 지원정보 서비스 및 훈련 프로그램(ASIST-AP)'은 빈곤 완화, 고용 창출, 지속 가능한 생계수단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프로그램의 중요 특징에는 인프라 설계에 대한 지역민의 직접 참여, 소규모 민간 기업 개발, 노동에 기반한 기술의 비용효과적인 사용,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의 인프라 정비 등이 있다.

그 밖의 프로젝트

- **이주 노동 분야:** 국제노동기구/유럽 집행위원회의 <지배구조와 이주노동에 관한 아시아 프로그램>
- **아동 및 여성 인신매매 분야:** <아동과 여성의 노동착취 근절 프로그램>, <메콩강 일대 인신매매 근절 프로그램>
- **생산적인 일자리와 고용가능성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쟁력, 생산적인 일자리, 고용가능성 관련 정책 일관성 확보 프로그램>
- **비정형 경제활동 분야:** <비정형 경제활동, 빈곤, 그리고 고용: 통합적 접근 프로그램>
- **국내 노동자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 분야:** <동남아시아 국내 노동자 보호, 강제 노동, 인신매매에 관한 프로그램>
- **채무 노역 분야:** <남아시아 지역 채무노역 방지 및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

Regional Director: Mr. Gek-Boo Ng

ILO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Pacific

UN Building, Rajdamnern Avenue, Bangkok 10200, Thailand

Tel. 662 288 1234, Fax. 662 288 3062

E-mail: BANGKOK@ilo.org

www.ilo.org/asia

Officer-in-Charge: Mr. Jiyuan Wang

ILO Subregional Office for East Asia

UN Building, Rajdamnern Avenue,

Bangkok 10200, Thailand

Tel. 662 288 1234, Fax. 662 288 3062

E-mail: SRO-BKK@ilo.org

Director: Ms. Linda Wirth-Dominice

ILO Subregional Office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19F, Yuchengo Tower, RCBC Plaza, 6819 Ayala Avenue,

Makati City, Philippines

Tel : 632 580 9900, Fax: 632 580 9999

E-mail: MANILA@ilomnl.org.ph

Director: Ms. Leyla Tegmo-Reddy

ILO Subregional Office for South Asia

3F, Theatre Court, India Habitat Centre, Lodi Road,

New Delhi, 110 003, India

Tel: 9111 24 60 2101, Fax: 9111 24 60 2111

E-mail: SRO-DELHI@ilodel.org.in